



하나의 그림책만 좋아하고,  
다양한 책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.  
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



영유아가 좋아하는 책만 반복해서 보는 건  
걱정할 일이 아닙니다.



영유아는 익숙한 주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 갑니다.

한 가지 주제에 머무는 시간은  
집중과 몰입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



# 좋아하는 책은 ‘편식’이 아니라 배움의 출발점입니다.



공룡, 자동차, 공주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관심은  
영유아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줍니다.

이 안정이 있어야 새로운 책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.



어려운 책을 피하는 모습은  
아직 그 책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 
신호일 수 있습니다.



공룡, 자동차, 공주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관심은  
영유아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줍니다.  
이 안정이 있어야 새로운 책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.

새로운 주제는 ‘조금만’ 섞어 주세요.



영유아가 좋아하는 책 옆에  
비슷한 그림,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을 한 권만  
슬쩍 놓아두어도 충분합니다.





영유아에게 억지로 권하지 말고,  
부모가 먼저 책을 펼쳐 보세요.



“이 책도 봐!”보다  
부모가 먼저 펼쳐 보고, 혼잣말처럼 읽는 모습이  
영유아의 호기심을 더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.



영유아가 고르는 책은  
지금의 관심과 마음을 보여줍니다.



어떤 책을 고르든, 그 선택 속에는  
영유아의 관심, 감정,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.

책 선택의 폭은 서두르지 않아도  
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.